



### 임창정·조성모·터보 소환 음악예능 대세는 '90년대'

추억의 노래 선보인 아카이브K·싱어게인 인기

각 방송시간 치열한 트로트 예능프로그램 경쟁 속에서 1990년대 감성을 자극하는 음악예능프로그램이 '꺼지지 않는 파워'를 자랑하고 있다. 최근 MBC '놀면 뭐하니?'가 '겨울노래 구출작전' 프로젝트로 옛 노래에 대한 향수와 감성을 불러일으킨 뒤 현재 방송 중인 SBS '전설의 무대 아카이브K'(아카이브K)와 JTBC '싱어게인'이 고공행진 중이다.

대중음악사의 중요한 순간을 기록하자는 취지로 기획된 '아카이브K'는 프라임 시간대가 아닌 일요일 밤 11시 방송에도 시청률 3%(대(이하 닐슨코리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대중음악의 황금기로 꼽히는 1990년대를 조명하며 시청자 관심을 끌어들이고 있다.

1990년대에는 록부터 발라드, 재즈, 힙합 등이 인기를 끌면서 다양한 장르의 음악이 공존했다. 당시 활동했던 변진섭·임창정·김종국·조성모·백지영·이수영 등 발라드부터 박미경·DJ DOC·터보·김현정 등 각 장르의 대표 가수들이 출연해 시간여행을 떠났다. 현진영의 '슬픈 마네킹', 클론의 '쿵따리 사바라', 톨라의 '날개없는 천사', UV의 'Go! Go! Go!'(원곡 듀스 feat. H2O) 등은 최근 각종 음원사이트를 통해 다시 공개되기도 했다.

'싱어게인'은 '레전드 명곡'('명곡'의 '명'자에 모양이 비슷한 다른 글자를 넣어 만든 신조어) 속 무명가수를 찾는 재미를 안긴다. 시청률도 8%를 넘기며 화제성까지 모두 잡았다.

상황이 여의치 않아 무대에 오르지 못하는 가수들에게 공연 기회를 주는 프로그램이다. 저마다 앨범 발표 경력이 있어 마이크를 잡으면 '누구나 한번쯤 들어본 노래'이거나 '아는 목소리'이다.

가요계와 방송가는 1990년대 대중문화계 흐름까지 주도했던 당시 음악이 시청자의 추억을 되새기는 즐거움을 선사하면서 당분간 '레전드 음악 예능프로그램'의 인기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 일본 팬심 녹이는 손예진의 영상 메시지

## “직접 탄 패러글라이더, 꼭 보러오세요”

日 '사랑의 불시착 전시회' 관련 감사 인사 지난해 9·11일에도 일본팬과 온택트 소통

톱스타 손예진이 일본 팬들에게 잇달아 손길을 내밀어 눈길을 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현지 팬들과 직접 대면하는 무대를 마련할 수 없는 상황에 발 빠르게 영상과 온라인을 통한 '온택트' 소통 방식을 택해 더욱 그렇다.

손예진은 8일 막을 올린 뒤 현재 일본 도쿄 시부야 JR하라주쿠역 인근 전시장 앞에서 열리고 있는 주연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 관련 전시회에 영상 메시지를 보냈다. 손예진은 일본 오리온 뉴스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공개된 영상에 흰색 블라우스 차림으로 등장해 아름다운 면모를 과시했다.

손예진은 영상 메시지에서 “‘사랑의 불시착’ 전시회가 일본에서 개최돼 정말 기쁘다”며 인사했다. 이어 “이번 전시회에서는 다양한 사진과 함께 제가 (드라마에서) 실제 사용한 패러글라이더와 극중 의상 등이 전시되고 있다”고 소개한 뒤 “마음이 따뜻해지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다”며 미소 지었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며 인사를 마



손예진

무리했다.

그의 말처럼 이번 전시회는 남한의 재벌 상속녀와 북한군 장교의 애절한 로맨스를 담아낸 드라마 내용과 관련해 극중 소품과 의상, 장면 사진 등 모두 450여점을 선보이고 있다. 다음 달 27일까지 도쿄에서 열리며 이후 오사카, 후쿠오카, 나고야로 이어간다.

손예진의 영상 메시지는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세로 일본 정부가 도쿄도를 비롯해 가나가와·사이타마·지바현 등 수도권 1도 3현에 긴급사태를 선포하면서 전시회의 경우 최대 5000명으로 관람객을 제한한 상황에서 나왔다. 철저한 방역조치에 따라 전시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현장을 찾은 팬들과 관람객들에게 보내는 감사의 의미이다.

앞서 손예진은 지난해 11월 '사랑의 불시착'에 대한 현지 팬들의 뜨거운 관심에도 인사를 전했다. 함께 주연한 동료이자 이제 연인이 된 현빈과 함께 영상 메시지를 통해 “직접 만나지 못해 아쉽다”면서 다음 무대를 기약했다.

감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에 현지로 날아갈 수 없었던 손예진은 9월 온라인으로 팬들을 만나기도 했다. 9월 27일 온라인 팬미팅을 열고 드라마에 얽힌 뒷이야기 등을 전해주었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 “코로나 때문에”... 지난해 극장수 513→474개

8년만에 극장·스크린·좌석수도 줄어 관객수 불과 6000만명...영화계 위기

감염병 확산 여파로 극장·스크린수가 8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서 극장가 '보릿고개'를 실감케 한다.

최근 영화진흥위원회가 내놓은 '2020년 전국 극장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극장수는 474개로, 2019년 513개에서 7.6%가 줄어들었다. 스크린수도 2019년 3079개에서 3015개로 2.1%, 전체 좌석수도 2019년 46만3162개에서 45만1828개로 2.4% 각각 감소했다.

이처럼 전년 대비 극장·스크린·좌석수가 줄어든 것은 2012년 이후 8년 만이다. 2000년대 이후 소폭으로 오르내린 해당 수치는 2012년 이후 매년 상승세를 유지했다. 영화진흥위원회 정책연구팀 조은비씨는 26일 “영화산업의 규모가 커져가는 상황에서 극장·스크린수 등이 줄어든 것은 이례적이다”면서 “일시적 현상이 아닌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해석한다”고 밝혔다.

또 55개 극장이 휴관하고 17곳이 아예 폐관했다. 휴폐관 스크린도 247개였다. 대부분 지난해 2월 및 11~12월 휴관한 경우가 많았다. 코로나19 1~3차 대유행과 맞물린 시기이다. 26일 상가정보연구소가 행정안전부 통계를 인용한 내용은 지표도 엇비슷해 지난해 81곳의 영화관이 폐업했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12년 만에 최대 규모다.

이에 따라 영화계와 극장가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극장 관객수가 2019년 사상 최



“방역 철저! 개봉은 화려하게!” 영화 '게임의 법칙: 인간사냥'의 배우 조경훈·김성수, 이수성 감독, 서영(왼쪽부터)이 26일 서울 광진구 자양동 롯데시네마 건대입구점에서 열린 시사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주현희 기자 teth1147@donga.com

대치였던 2억2668만명에서 지난해에는 30% 수준인 6000만명에 불과한 것으로 추산되는 등 위기 상황이 또 다른 악순환을 몰고 왔기 때문이다.

관객이 일상 가까이에서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2시간여 동안 문화적 체험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인 극장이 줄어들면서 신규 작품 기획부터 상영에 이르는 영화산업의 흐름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시선이 나온다. 상가정보연구소는 “영화 개봉 일정이 연기되면서 피해가 더욱 늘어나 영화관 폐업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

했다. 한국상영관협회는 최근 “경연난을 이기지 못한 상영관이 속속 문을 닫고 있다”면서 “영화산업 전체의 붕괴를 막기 위해” 좌석 띄어 앉기 조정·영업 종료 시간 제한 해제·임대료 등 세계 지원 등을 당국에 호소했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 뇌가 색시해지는 하루 두뇌게임

#### 강주현의 퍼즐월드

WWW.경품광고퀴즈.kr WWW.매직스도쿠.kr

위 정사각형 안에는 1~9까지의 숫자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들을 사용해 가로, 세로, 대각선 방향은 물론 작은 정사각형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골고루 들어가도록 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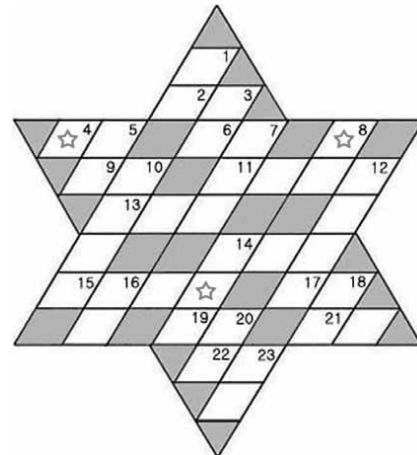
#### ■ 스도쿠문제

		6	4		9			
			7		3			
2		5		8	7			1
	1	2		3			6	9
			9		7			
9	6			1		8	7	
4		9	2			1		3
			1	9				
		8		5	6			

#### ■ 스도쿠정답

4	6	9	5	8	2	1	7	3
8	1	2	6	1	2	8	9	5
5	8	1	9	2	6	5	7	4
2	1	8	7	9	6	8	5	3
6	9	5	7	8	2	1	4	9
1	8	2	6	9	5	7	3	4
9	2	7	8	5	1	6	8	3
8	5	6	1	2	7	9	4	8
1	8	6	2	7	9	5	3	4
6	4	2	1	8	9	8	7	5
7	9	9	2	6	1	8	4	3
9	8	7	9	1	8	2	7	1
5	8	7	9	6	2	1	8	3
2	1	8	6	7	9	5	3	4
8	7	5	6	9	2	1	4	8
6	9	1	2	7	8	5	3	4
4	2	6	7	1	9	5	8	3

#### ■ 낱말문제



#### ■ 가로열쇠

02. 선거에서 떨어짐. 04. 전례나 규칙, 명령 따위를 그대로 좇아서 지킴. 06. 부름에 응답한다는 뜻. 09. 넘치도록 가득함. 11. 상대편의 어깨에

서로 팔을 얹어 끼고 나란히 섰. 13. 닭의 새끼. 14. 생물 따위가 일정한 곳에 자리를 잡고 사는 곳. 15. 나라를 잘 다스리고 백성을 평안하게 함. 17. 화장품 따위를 넣는 서랍을 갖추어 만든 가구. 19. 걸어서 층 사이를 오르내릴 수 있도록 턱이 지게 만들어 놓은 설비. 21. 코끼리 입 밖으로 길게 튀어나온 엄니. 22. 모나지 아니하고 부드럽게 굽은 선.

#### ■ 세로열쇠

01. 청하는 바를 들어줌. 03. 여럿 가운데 특별히 가려서 좋아함. 05. 노력이 헛되게 된 상태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07. 가슴속에 쌓여 있는 한이나 불만 따위의 감정. 08. 재주와 슬기가 남달리 특출한 아이.

10. 한 가지 처방으로 온갖 병을 다 고침. 12. 사람이 살고 있지 않는 외진 곳. 14. 서민에 속하는 계층. 16. 나라의 수치. 18. 여러 가지 상 중에서 가장 큰 상. 그랑프리. 20. 물이 흐르는 골짜기. 23. 대열이나 행렬, 활동 따위에서 맨 앞.

#### ■ 낱말정답

단어 이어가기: 낱말을 풀 다음 ☆칸을 이어놓으면 여러 분이 아시는 스타 이름이 됩니다.

